

# 기이레 류큐코우가이 산지(產地)

특별천연기념물 1952년 3월 29일 지정  
지정지 가고시마시 기이레 누쿠미초 관리자 가고시마시



맹그로브 삼림은 열대와 아열대 기후 지역에 나타나고, 진흙이 쌓이는 작은 만이나 하구의 담수와 해수가 섞이는 조간대에서 발달합니다.

류큐코우가이는 맹그로브를 구성하는 히루기과(홍수과)의 일종으로, 발아한 씨앗이나 유묘가 [류큐(오키나와의 옛 이름)의 코우가이(비녀)]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메히루기(암홍수, 맹그로브 나무의 일종)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히루기의 씨앗은 열매 속에서 발아해 모체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일정한 크기로 성장하면 어미 식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태생 식물입니다. 모체에서 떨어져 나간 싹은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 수심이 얇은 곳에서 싹이 바닥과 접촉하면 뿌리가 자라나고 나무로 발육합니다. 메히루기의 자연 분포는 동남아시아에서 남서 제도(아마미오시마, 야쿠시마, 다네가시마 등을 포함) 및 사쓰마반도까지이며, 남서 제도의 메히루기는 약 4~7m 높이로 성장합니다. 기이레는 메히루기의 자생 북한지이며, 키이레의 메히루기는 약 2m 정도로 성장합니다.

이곳은 자생 북한지대로서 1921년 3월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53년 3월에는 일본의 특별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월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